



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

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“사법시험에도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여성신문

1988. 4. 30. 등록번호 다531호 / 발행인·편집인:이계경 / 발행처 (주)여성신문사 (우)122-041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267-1 / 인쇄인·형태랑 대한교과서주식회사/ 대표전화(02)389-6500 / 사업국 (02)389-9272 / 판매국(정기구독신청) (02)389-9271 / 광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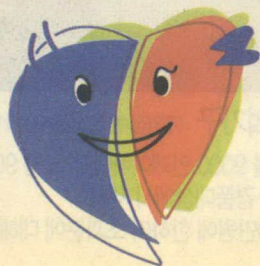
‘사랑의 친구들’ 활동개시

“굶는 어린이 없는 세상 만듭시다”

결식아동 후원 〈사랑의 바자 한마당〉, 10월 24-25일 류관순 기념관



‘사랑의 친구들’ 초대 총재 박영숙



결식아동, 실직여성가장, 노숙자,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‘사랑의 친구들’이 출범 기념행사로 오는 10월 24일부터 이틀동안 류관순 기념관에서 결식아동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‘사랑의 바자 한마당’을 마련한다.

‘사랑의 친구들’은 기존의 사회단체 활동 지원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소집 단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힘을 전하는 진정한 ‘친구’가 되겠다는 뜻을 가진 법인체다. 〈관련기사 14면·사진 민원기 기자〉